



**선의 법칙**  
편혜영 지음

**엇갈리듯 만나는 '생의 곡선'**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편혜영이 신작 장편을 펴냈다. 15년 간의 작품활동을 통해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자신의 소설 세계를 보여준 작가의 신작으로부터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데뷔 이후 독특한 소설세계를 열어온 작가답게 이번 작품도 이름에 걸맞고도 남는다.

소설은 신기정의 동생 신하정이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면서 복잡하게 얽혀든다. 신기정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식으로 체념하며 동생의 죽음을 수습한다. 그리고 동생이 몸시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 윤세오. 동생은 왜 그토록 윤세오에게 간절히 전화를 했을까.

작품은 파국에서 시작되는 인물들의 궤적을 파헤치면서 다른 점(點)에 가 닿으려 안간힘으로 그리는 선(線)에 주목한다. 과연 선의 법칙은 무엇일까.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말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여령 지음

**천국의 말에게 전하는 애끓는 부정**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이 세상의 모든 말들에게, 말을 가진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다. '말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는 일찍이 세상을 떠난 딸 고 이민아 목사의 3 주기를 맞으면서 펴낸 산문집이다.

그러나 단순한 산문집이 아니다. 천국에 있는 딸을 향한 '우편번호 없는 편지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잔잔한 어조로 씌여져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의 딸의 유년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의 굿나잇 키스를 기대하고 서재 문 앞에서 기다리던 딸을 애써 모른 척 했었다. 일에 몰두하느라 등을 돌린 채 딸을 돌아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저자는 만일 지금 나에게 30초의 시간이 주어된다면 굿나잇 키스를 하고 싶다고 고백한다. "굿나잇 민아야, 잘 자라 민아야."

〈열림원·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소담한 생각 밥상**

박규호 지음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소담한 생각 밥상. '소담하다'는 형용사는 생각세가 탐스러워 먹음직스럽다는 뜻이다.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차려진 식탁이 바로 소담한 밥상이다.

그런데 음식이 아닌 생각으로 차려진 밥상이 있다. 다른 아닌 '소담한 생각 밥상'. 음식과 레시피 주재료는 '생각'이다. 경험, 느낌, 기억 등은 부재료다. 여

기에 삶의 지혜라는 양념을 얹어 버무리면 맛깔스러운 요리가 완성된다.

한전 박규호 부사장이 '소담한 생각 밥상'을 펴냈다. 음식을 좋아하는 이들 이라면 하여 요리 관련 책이 아닌가 착각을 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박규호의 울림이 있는 생각 에세이"라는 부제를 보고 나면, "생각도 밥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문학 양식 중에 가장 맛깔스러운 장르가 바로 에세이(수필)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세이라는 말은 16세기 프랑스의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몽테뉴가 처음 명명했다. '에세(essai)는 프랑스어로 '시도', '시험'이라는 뜻으로 시도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의미와 직결된다.

박 부사장의 에세이가 생각, 편린, 경험, 느낌, 지혜, 성찰 등을 토대로 차려낸 코스요리임을 짐작케 한다. 사실, 한 가족이 둘러 앉아 끼니를 해결하는 가장 친밀한 시간은 밥상에서다. '밥상머리'에서 행해지는 대화, 교육, 친교가 중요

한 것은 그 때문이다. 허물며 진수성찬으로 소담하게(상대기가 부러지게) 차려낸 '생각밥상'에서의 시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마디로 책은 사람 이야기다. 사람과의 만남은 저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직장 상사, 선후배, 친구, 지인은 그의 기억 장치에 저장돼 훌륭한 '생각 밥상'의 자료가 된다. 비단 사람만이 아니다. 책, 신문, 여행지도 만남의 대상이자 그의 사고를 살찌우는 소재다.

중요한 것은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한다는 점이다. 만남이라는 원 재료가 일정기간 숙성이 지나 한권의 책(생각 밥상)으로 탄생한 비결이다.

"나 자신이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삶의 흔적을 남기기로 마음 먹고 도전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감히 내가'라는 저어함과 망설임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책이 가지는 의미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각 장의 부제는 요리 이름을 그대로 차용했다. 1장 에피타이저부터 7장 디저트에 이르는 코스 요리는 생각의 진수성찬이다. 경험과 문헌, 메모와 무수한 편린이 빛어낸 '생각밥상'은 하나의 단상을 넘어 전문가적 신격으로 다가온다.

'회사요리'는 한전에서 일하는 동안 겪었던 경험과 일상이 주 메뉴다. 나주 혁신도시에 새롭게 동지를 둔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현실을 긍정하고 즐기는 호방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요리'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초고속 경제 성장 이면에 드리워진 미성숙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일본요리' 부분은 일본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중국요리'는 베이징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오롯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국제협력부장, 도쿄지사장, 중국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체득했던 해외 통다운 전문가적인 관점이 녹아 있다.

가장 '식감'을 돋우는 '요리'는 7장 디저트다. 저자의 재미있고 다채로운 경험

이 추억이라는 양념에 버무려져 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학사장교로 복무했던 경험, 부모님에 대한 애뜻한 기억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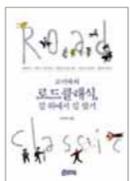
반면 가장 즐거움을 주는 메뉴는 '경영요리'다. 저자는 한전에서 모셨던 역대 사장들에 대한 평을 가감 없이 늘어놓는다. 강동석 전 장관은 '일 잘하는 멋쟁이', 조환익 사장은 '소통의 달인'으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책 발간을 "산책보다 조금 멀리 길을 떠난 여행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연의 이치를 좇아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않는다.

"앞에 목말라하고 진정된 배움을 갈구하며 나의 생각 여행에 동참해 주고, 나의 글을 기다려 온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조그만 디딤돌이라도 된다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겠다."

〈매일경제신문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고전속에서 삶의 길을 찾다**



**고미속의 로드클래식...**  
고미속 지음

"길을 떠나려면 지도를 그려야 한다. 지도를 그리기 위해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다. 우리 시대의 별은 바로 '고전'이다. '열하일기', '서유기', '돈키호테',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리스인 조르바', '걸리버 여행기' 등등. 인생과 우주의 지혜를 담은 책들을 고전이라고 한다면, 고전 자체가 '길'에 대한 탐구인 셈이다."

고전평론가 고미속 씨가 펴낸 '고미속의 로드클래식, 길 위에서 길 찾기'는 길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삶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단지 저자는 고전 문학 작품들 중 '길' 자체가 주인공이자 주제인 고전들을 특유의 현재적 시선으로 새롭게 읽어낸다. 자유의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운명은 길에 대한 탐구로 귀착된다.

저자는 작품 속 주인공들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을 차근차근 펼쳐 보인다. 예를 들어 '서유기'의 삼장법사와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한다. '그리스인 조르바' 속 조르바를 통해서 욕망이나 두려움에 휘

둘리지 않는 총명한 자유란 무엇이며 왜 인간은 자유를 갈구하는지를 텍스트와 현실을 넘나들며 펼쳐낸다.

저자가 선택한 텍스트들은 여타의 고전들과 달리 사권 위주의 서사적 연결이 느슨한 편이다. 주인공을 자체가 쉬지 않고 이동하는 '움직이는 텍스트'인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텍스트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길이다.

저자는 "길은 변화무쌍할 뿐더러 끊임 없이 유통한다. 수많은 인연이 오고 또 간다. 그 유통성이 길을 또 변형시킨다"며 "유기적 인과론이나 고정된 장르 체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망한 노릇"이라고 말한다. 〈북드라마·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현대미술 슈퍼 컬렉터 '찰스 사치'의 모든 것**



**나, 찰스 사치, 아트홀릭**  
찰스 사치 지음

세계 최고의 광고회사 '사치 앤 사치'의 설립자, 독보적인 미술품 컬렉터, 현대미술의 상징이 된 사치갤러리의 주인... 현대미술 컬렉션의 크나큰 아이콘 찰스 사치의 첫 인터뷰집 '나, 찰스 사치, 아트홀릭'이 출간됐다.

1990년대 이후 영국 현대미술을 동시대 미술의 정점에 올려놓은 주요 동

력이었던 사치는 이름 자체만으로 이 시대 많은 컬렉터들이 참고하는 이정표가 됐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미술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결국 자본이라는 현실을 드러내게 했고, 그 결과 미술계 전체가 자본과 시장에 얽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과 답변으로만 돼 있다. 일반 대중과 언론계 종사자, 비평가들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던 사치에 대해 품었던 궁금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사치 역시 그 질문들에 가감 없이 솔직하게 대답한다.

〈오픈하우스·1만4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